

육사 소설의 ‘우회적 글쓰기’와 저항

고 명 철*

차 례

1. 문제인식: 육사의 소설에 대한 논의를 위해
2. 육사의 번역소설과 ‘우회적 글쓰기’의 양상
 - 2-1. 일제 식민체제의 극복, 항일운동의 길떠나기: 노신의 「고향」
 - 2-2. 식민지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기: 고정의 「골목안」
3. 식민체제의 근대적 일상의 억압과 ‘우회적 글쓰기’: 육사의 창작소설 「황엽진」
4. 맺 음 말

<국문초록>

육사가 창작과 번역의 형태로 남긴 소설 3편은 193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한 일본제국주의의 파시즘체제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한 글쓰기가 아니라 일제 파시즘에 대응한, 그 당시 문인들의 글쓰기의 한 유형이었던 이른바 ‘우회적 글쓰기’의 범주로 파악해야 한다. 육사는 3편의 소설을 통해 시와는 다른 ‘우회적 글쓰기’를 행한 것이다. 육사의 이러한 글쓰기는 날이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렇다고 정면으로 맞설 수 없는, 육사의 고뇌어린 문학적 표현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식민지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응시하고 헤쳐나가려는 실천적 의지가 깊숙이 배어 있다.

나는 육사의 두 편의 번역 소설을 검토해보았다. 노신의 「고향」을 통해서는 육사 자신의 잦은 ‘탈향-길떠나기’가 갖는 의미 맥락을 우회적 글쓰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 식민체제의 일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식민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길을 향해 떠나는 육사의 ‘탈향-길떠나기’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면서,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정의 「골목안」을 통해서는 만주의 어느 골목안에서 펼쳐진 중국인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그리하여 육사는 만주에서 중국인이 겪는 식민지 근대의 암울한 현실을 응시하되, 그것은 일제말 조선에 가혹해지는 식민지 근대의 폭압과 침탈로 드리워진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일제의 식민지 근대의 어둠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폭압적 근대가 갖는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육사의 유일한 창작 소설인 「황엽진」을 검토해보았다. 「황엽진」이 근대소설의 관점으로는 형상화의 미숙성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 미숙성이야말로 「황엽진」이 갖는 특유의 서사적 가치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근대적 사랑의 형식으로써 근대적 주체의 온전한 상을 확립하지 못하는 존재의 환멸적 태도를 예들러 표현하고자 한 것이 바로 유희의 존재성이며,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근대의 일상 세계 속에서 피식민지인을 근대적 주체로

서 정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식민지 근대의 일상적 억압을 사랑과 이별의 서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령의 꿈을 통해 식민지 파시즘 체제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 피식민지인의 암울한 현실과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생의 삶을 향한 욕망과 의지를 우회적 글쓰기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핵심어: 우회적 글쓰기, 일본 제국주의, 일제 파시즘, 식민지 근대, 번역소설, 창작소설

1. 문제인식: 육사의 소설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어떤 대상에 대한 통념적 접근은 창조적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므로, 그 논의 또한 상투적이거나 진부할 수밖에 없다. 통념적 접근은 그 대상의 진리(혹은 진실)에 육박해들어가 지 않는바,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진리의 언저리를 배회하는데 자족할 뿐, 그 대상이 지닌 또 다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새것 콤플렉스’에 붙잡힌 채 대상에 대한 견강부회식 논의로 빚어진 진리의 오류 또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육사의 문학을 논의하는 데 통념적 접근과 ‘새것 콤플렉스’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되, 이육사의 문학이 갖는 또 다른 진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탐구의 길을 모색해야 할까. 여기서 이육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 성과가 뒷받침하듯, 그 대부분의 주요 성과들은 이육사의 시세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¹⁾ 최근 이육사의 행적에 대한 치밀한 실증적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구체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고,²⁾ 이 같은 그의 행적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그의 문학 세계 전반에 대한 진전된 성과가 제출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³⁾ 무엇보다 종래의 시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육사의 수필과 비평을 포괄하여 육사의 문학 전반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육사에 대한 문학 탐구를 진전시키고 있다.⁴⁾ 그리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간주했던 육사의 산문(수필과 비평)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문인으로서의 현실적 고뇌와 식민지의 현실에 대한 육사 나름대로의 저항의식을 새롭게 발견해내고 있다.

그런데 육사의 산문에 대한 논의들 중 그 대부분이 수필과 비평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육사의 소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⁵⁾ 물론, 현재까지 전하는 육사의 소설인 경

*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2004년 이육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육사의 문학적 성과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육사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약 300여편의 논문이 축적되었다고 한다. 2004년까지 축적된 육사에 대한 연구 서지 목록은 김대행 외,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민음사, 2004, 411-427쪽.

2) 김희곤, 『다시 쓰는 육사평전』, 지양사, 2000.

3) 육사의 행적에 대한 치밀한 실증을 토대로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논의를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산하 민족문학연구소에서 실증적으로 밝힌 육사의 중국에서의 생활 중 북경의 중국대학에 수학하였다는 사실은 육사의 항일독립운동을 비롯한 문학 활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지평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의 「이육사와 중국」(『안동작가』 4호, 2006년)을 참조.

4) 육사의 산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육사 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는 진전되고 있다. 육사의 산문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김영주, 「육사수필의 문학성」, 『안동문화』 14집, 1993; 김삼주, 「이육사의 비평론 고찰」, 『예술원논문집』 25집, 1996; 유현정, 「이육사(1904~1944)의 시대인식-1930년대 시사평론을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논문, 2002; 한경희, 「착종된 현실에 대한 투지의 금강심-이육사 수필을 중심으로」,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이육사문학축전 기념문집), 2004; 하상일, 「이육사의 사회주의 사상과 비평의식」, 『탈식민주의를 넘어서』(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소명출판, 2006; 홍기돈, 「성리학적 세계의 파탄과 육사가 선택한 길」, 『안동작가』 4호, 2006; 홍기돈, 「육사의 문학과 연출된 요양여행」, 『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소명출판, 2007.

우 창작소설이 1편, 번역소설이 2편에 불과하여, 소설을 제외한 다른 장르에 비해 그 작품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육사의 문학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탐구 대상의 가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의 편수가 터무니없이 빈약하다고 하여, 육사의 문학에서 소홀히 간주할 성격으로는 쉽게 재단지을 수 없다. 육사가 창작과 번역의 형태로 남긴 소설 3편은 193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한 일본제국주의의 파시즘체제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한 글쓰기가 아니라 일제 파시즘에 대응한, 그 당시 문인들의 글쓰기의 한 유형이었던 이른바 ‘우회적 글쓰기’의 범주로 파악해야 한다.⁶⁾ 육사는 3편의 소설을 통해 시와는 다른 ‘우회적 글쓰기’를 행한 것이다.⁷⁾ 육사의 이러한 글쓰기는 날이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렇다고 정면으로 맞설 수 없는, 육사의 고뇌어린 문학적 표현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식민지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응시하고 헤쳐나가려는 실천적 의지가 깊숙이 배어 있다.

사실, 지금까지 육사의 소설에 대한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 논의는 육사의 창작소설이 갖는 형식미에 초점을 맞추거나,⁸⁾ 육사가 번역한 중국 근대문학의 대문호인 노신(魯迅)의 소설이 육사의 문학에 수용된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⁹⁾ 육사 문학에서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창작 및 번역 소설을 논의하면서, 육사의 문학에 대한 풍성한 성과를 축적시켰다는 것 자체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육사의 소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의 파시즘체제에 대한 저항의 한 유형으로써 시도된 ‘우회적 글쓰기’의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육사처럼 일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행한 항일독립운동가로서의 문학적 실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문학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는 게 육사의 문학 활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튼실히 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육사의 소설을 어떠한 시각과 맥락에 의해 살펴보는 게 유의미한 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육사의 소설을 일제 파시즘체제에 대한 저항의 한 유형으로 삼았던 ‘우회적 글쓰기’의 하나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육사의 문학 세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 육사의 번역소설과 ‘우회적 글쓰기’의 양상

2-1. 일제 식민체제의 극복, 항일운동의 길떠나기: 노신의 「고향」

5) 지금까지 필자가 파악한 육사의 소설에 대한 논의들은 다음의 세 편의 연구 성과만이 있을 뿐이다. 홍신선, 「육사소설의 구조」, 『동악어문논집』 17집, 1983; 심원섭,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및 소설에 나타난 노신 문학 수용 양상」, 『연세어문학』 19집, 1986; 김장동, 「이육사 소설에 대해」, 『안동문화』 14집, 1993.

6) 친일문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광범한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김재용은 일제말 문학인들의 저항적 글쓰기의 한 유형으로 ‘우회적 글쓰기’를 주목하고 있다. 일제말의 혹독한 검열을 피해가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적 글쓰기를 포기할 수 없는 문인들이 선택한 글쓰기라는 점에서 일제말 저항의 한 유형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글쓰기의 형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일제말 문학인의 세 가지 저항 방식」,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를 참조.

7) 김재용의 “이육사 역시 우회적 글쓰기로서 시를 쓰다가 이것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망명을 시도한”(「일제말 문학인의 세 가지 저항 방식」, 앞의 책, 200쪽)이란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듯, 비단 이육사에게 우회적 글쓰기는 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1930년대 후반 이후 1940년대까지 펼친 문학 활동에서 우회적 글쓰기는 육사를 비롯한 일제말 문인들이 선택한 저항적 글쓰기의 한 유형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홍신선과 김장동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9) 심원섭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육사는 노신의 첫 소설집 『눌함(吶喊)』에 수록된 단편 「고향」을 『조광』의 1936년 12월호에 번역하여 소개한다. 육사가 노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은 노신의 죽음을 추도하여 발표한 그의 「노신추도문」(『조선일보』 1936. 10. 23-27)에 잘 드러나 있다. 「고향」을 번역하기 전에 발표한 「노신추도문」에서 육사는 노신의 문학관과 중국혁명에서 노신의 문학이 갖는 위상을 주목하며, 육사 자신을 포함한 조선 문단 전체가 숙고해야 할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가다듬는다.

그의 작가로서의 태도를 통하여 일관하여 있는 노신 정신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데 적지 않은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조선 문단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술과 정치의 혼동이니 분립이니 하여 문제가 어찌 보면 결말이 난듯도 하고 어찌 보면 미해결 그대로 있는 듯도 한 현상인데, 노신같이 자기 신념이 굳은 사람은 이 예술과 정치란 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¹⁰⁾

그러므로 노신에 있어서는 예술은 정치의 노예가 아닐 뿐 아니라 적어도 예술이 정치의 선구자인 동시에 혼동도 분립도 아닌, 즉 우수한 작품, 진보적인 작품을 산출하는 데만 문호 노신의 위치는 높아졌고, 아Q도 여기서 비로소 탄생하였으며, 일세의 비평가들도 감히 그에게는 함부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¹¹⁾

정치의 노예가 예술일 수 없다는 노신의 문학관을 육사는 주목한다. 노신이 문학을 통해 중국의 봉건적 폐단을 일소하고 근대국민국가의 새로운 면모를 위해 고투하는 것을, 육사는 결코 가볍게 인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신의 소설들 중 하필 「고향」을 번역하여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창작이 아닌 번역의 형식을 빌려 육사가 들려주고자 한 전언은 무엇일까?

어떤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한다는 것은, 번역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언을 번역의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특히 “창작에서 주제는 한 단계씩 형성되어 나가다가 최후에 완성되지만, 이와 반대로 번역에서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하나의 주제, 즉 의미의 방향이 낱말들을 선택하게 하고 서로 결합시키게 하는 것”¹²⁾임을 고려해볼 때, 육사의 경우 그 행적이 웅변해주듯이, 투철한 항일독립운동가이자 지식인-문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철학적 입장이 배음(背音)으로 자리한) 예술적 입장을, 창작의 형태가 아닌 번역이란 간접적 언술 형태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번역작품의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가 번역자의 예술적 입장을 담고 있어, 번역자는 창작 행위를 통해 혹시 껴안을 수 있는 정치적 억압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번역 행위가 암울한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적 글쓰기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번역 행위 또한 번역자의 정치철학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어서, 어떠한 작품을 번역하느냐는 것 자체가 바로 창작 못지 않은 정치철학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 된다.¹³⁾

노신의 「고향」에서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지식인의 내면 풍경이 그려지고 있다. 작중 인물 ‘나’는 20여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지만, 이 귀향은 다시 고향을 떠나기 위한 것이어서 ‘나’에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나’가 귀향하여 마주친 마을의 풍경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한산”¹⁴⁾하

10) 이육사, 「노신추도문」, 『이육사전집』(김용직·손병희 편), 깊은샘, 2004, 214쪽.

11) 「노신추도문」, 앞의 책, 216쪽.

12) 김인환, 「번역과 맥락」, 『상상력과 원근법』, 문학과지성사, 1993, 187쪽.

13) 육사의 예술적 입장의 배음(背音)으로 자리하고 있는 정치철학적 입장은 육사가 중국에서 다닌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대장인 김원봉과 나눈 대화, 즉 “다른 졸업생의 사명은 모르나, 나는 김원봉에게 호출되어 금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므로, 조선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으로 돌아가서 노동자, 농민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이환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0-의열항쟁 3』,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7, 157쪽)다는 데서 헤아려볼 수 있다. 따라서 육사의 이와 같은 항일독립과 긴밀히 결부된 정치철학적 입장을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입장이 용해된 예술적 입장을 창작물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회적 글쓰기가 필요한 것이다.

여, 타향살이를 하다가 온 ‘나’의 육신을 더욱 고단하게 할 따름이다. 그러던 ‘나’는 고향의 아름다웠던 유년시절을 회상하게 되는데, 그 회상의 매개는 ‘윤토’라는 인물과의 소중한 추억거리다. ‘나’는 ‘윤토’와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윤토’에게서 자연의 생리와 법칙을 배우고, ‘나’의 삶에 대한 모종의 깨우침의 계기를 얻는다. 말하자면 ‘윤토’는 어린 ‘나’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세계인식의 매개 역할을 맡았던 셈이다. 그때는 비록 순진무구한 유년시절이었지만, ‘윤토’와 더불어 세상을 살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유년시절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성인이 된 ‘나’와 ‘윤토’는 고향의 빈곤한 삶과 비루하고 부정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다.¹⁵⁾

어쩌면, 육사에게 「고향」의 이와 같은 현실은 노신이 살았던 중국의 그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육사의 유년시절, 그리고 일제식민지의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조선의 현실과 포개지는 맥락으로 읽혔는지도 모른다. 고향을 떠나 타지를 찾는 육사의 잦은 탈향 여정의 밑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육사의 심회와 현실 인식이 「고향」의 서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고향」의 번역을 통해 육사가 정작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은 소설적 전언은 무엇일까? 이것은 「고향」의 결말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고향의 가산(家産)을 정리한 ‘나’는 고향을 떠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착잡한 심정을 갖되, 고향에 남은 자와 고향을 떠나는 자신에게 도래할 미래에 대한 상념을 표출한다.

나는 누워서 뱃바닥에 찰석찰석 들이치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 혼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생각했다. (중략)

그렇지만 나는 또 그들(고향에 남은 자들-인용자)이 꼭같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나와 같은 괴롭과 방랑의 생활을 하도록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결코 윤토와 같은 괴롭과 마비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괴롭과 제멋대로 하는 생활을 하면서 좋다고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아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략) 생각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대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또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상에 길과 같은 것이다. 길은 본래부터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길은 스스로 나게 되는 것이다.¹⁶⁾

고향에 남은 자와 고향을 떠나는 ‘나’에게 기다리는 미래는 “새로운 생활”이다. 여기에 특정한 형태를 띤 희망의 유무를 단정지을 수 없다. 온갖 사회 구조악과 행태악이 난무하는 고향을 그대로 둔 채 신생의 희망을 꿈꿀 수 없다. 그렇다고 낡고 고루한 것을 방관한 채 희망의 부재를 추인할 수도 없다. 여기서 ‘나’의 길떠나기는 곧 탈향이되, 이미 정해진 미래를 향한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길을 떠나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면서,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의 ‘탈향-길떠나기’는 ‘나’의 ‘새로운 생활’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도정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나’의 ‘탈향-길떠나기’는 슬픔과 회한에 의해 쫓기우는 수동적 성격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새로운 생활’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려는 능동적 성격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사가 「고향」에서 읽어낸 창조적 문제의식이다. 육사 자신의 잦은 ‘탈향-길떠나기’가 갖는 의미 맥락은 노신의 「고향」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14) 노신, 「고향」(이육사 역), 『이육사 전집』(김용직·손병희 편), 깊은샘, 2004, 115쪽.

15) “그(윤토-인용자)가 나간 뒤 어머니와 나는 그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것들은 많고 흉년은 거듭지고 세금은 고되고 군인 도적놈 관리양반 서방님네 모다가 모여서 장승같이 삐쩍 마른 사내 하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하기를 가지고 가기에 만만치 않은 살림부스러기는 그를 주는 것이 좋으니 그에게 마음대로 골라도록 하라고 하셨다.”(「고향」, 앞의 책, 127쪽)

16) 「고향」, 위의 책, 129-130쪽.

창작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우회적 글쓰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제 식민체제의 일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식민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길을 향해 떠나야 하며,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2-2. 식민지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기: 고정(古丁)의 「골목안」

육사가 노신의 「고향」을 번역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면, 『조광』의 1941년 6월호에는 고정(古丁)의 「골목안(小巷)」이란 단편을 번역함으로써 일제 식민체제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원작자 고정에 대해서는 육사 자신이 “이 작가의 경력에 대해서는 역자도 잘 알지 못한다.”¹⁷⁾고 직접 언급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원작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뜻 번역을 맡고 있다는 게 문제적이다. 앞서 살펴본 「고향」은 육사가 존경하던 노신이 원작자이므로 원작의 주제의식과 육사가 번역하고자 한 번역의 의도가 포개지면서 번역자의 우회적 글쓰기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골목안」의 경우 원작자의 문학 세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선뜻 번역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는 「골목안」을 번역한 육사의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육사가 「골목안」의 원작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노신의 「고향」을 번역함으로써 의도했던 것 못지 않은, 일제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적 방편으로서의 또 다른 우회적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일제말의 우회적 글쓰기가 그렇듯이 「골목안」도 표면상으로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 작품의 무대는 만주이며, 만주에서 간난(艱難)한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중국의 한 부부의 비극적 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사는 이 소설을 번역함으로써 만주의 어느 골목안에서 펼쳐진 중국인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골목안’이란 제명(題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근대의 온갖 일상적 비루한 것들은 골목안 음습한 곳에 모여있다.

밤바람은 사람이 구역증이 날 만치 악취를 불어오고 거기다 거칠은 아귀성과 음탕한 욕질까지 섞여서 아편 모히바늘 노름 사창 이런 것들에 지친 인간들을 이 골목안으로 모여들게 하는 것이었다.¹⁸⁾

이러한 골목안에서 작중 인물 ‘금화’는 창부 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비루한 것들이 모이는 골목안은 ‘금화’에게 유일한 생의 거점을 제공한다. 골목안으로는 “회적회적 유령처럼 보이는 못사람들”¹⁹⁾이 모여, ‘금화’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간다. 마약과 노름, 그리고 매춘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이 모여든 골목안이야말로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골목안의 풍경이 ‘만주’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해서 안 된다.²⁰⁾ 이것은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육사가 이 작품을 번

17) 고정, 「골목안」(이육사 역), 『이육사전집』(김용직·손병희 편), 깊은샘, 2004, 103쪽.

18) 「골목안」, 앞의 책, 104쪽.

19) 「골목안」, 앞의 책, 105쪽.

20) 이 작품의 무대가 만주라는 사실은 육사가 원작자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작품의 맨도리는 만주라는 특수한 풍토 속에서 주제를 골르는 데도 그러러니와”(「골목안」, 위의 책, 103쪽)에서 언급하는 데서도 알 수 있고, 작품 속에서 ‘금화’가 그의 남편을 기다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그 혼잣말(“밤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는 법이야 아야!”), 「골목안」, 위의 책, 112쪽)을 육사가 만주의 미신이라고 주석을 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역하여 소개한 시기가 1941년, 즉 일제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1932년 3월 일제의 관동군이 중국 동북지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여 그 지역에 ‘만주국’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일제의 또 다른 식민지 경영을 실시하였음을 상기해볼 때 작품 속 ‘금화’와 ‘골목안’의 비루할 대로 비루한 풍경들은 일제의 만주국 침탈로 인해 드리워진 식민지 근대의 어두운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이것은 육사가 「골목안」을 번역하여 소개한 의도로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는 육사의 행적에서 육사가 중국의 항일운동과 조선의 항일운동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국과 조선의 연대 속에서 항일운동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마저 일제의 식민지 근대가 초래한 근대의 폭력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폭력적 일상을 예의주시하여 그것을 부정하고 경계하는 육사의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육사는 만주에서 중국인이 겪는 식민지 근대의 암울한 현실을 응시하되, 그것은 일제말 조선에 가혹해지는 식민지 근대의 폭압과 침탈로 드리워진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일제의 식민지 근대의 어둠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폭압적 근대가 갖는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의 어둠과 부정적 양상은 작품의 처음과 말미에서 골목안에 쓰러진 자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내뱉는, “혜 빠드러졌어.”²¹⁾ “빠드러졌그만 그래.”²²⁾라는 한마디에 집약돼 있다. 여기서 “아주 발가승이가 된 모히 중독자의 시체”²³⁾를 향해 ‘금화’가 무심결에 내뱉는 말(“혜 빠드러졌어.”)과, ‘금화’마저 중독자로서 골목 담벼락에 쓰러진 채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빠드러졌그만 그래.”)은 모두 식민지 근대의 어두운 측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자들의 절망적 현실을 증언하는 것임과 아울러, 일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식민지 근대의 허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중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골목안」을 번역한 육사의 의도는 일제말 가혹한 검열을 피해가면서 식민지 근대가 초래한 암울함을 드러내기 위한 우회적 글쓰기로 파악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3. 식민체제의 근대적 일상의 억압과 ‘우회적 글쓰기’: 육사의 창작소설 「황엽전」

지금까지 전하는 육사의 유일한 창작 소설은 「황엽전(黃葉箋)」(『조선일보』, 1937. 10. 31-11. 5) 단 한 편뿐이다. 육사의 문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시에 국한된 나머지 그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 연구의 성과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 진행된 연구에서도 「황엽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개념의 소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²⁴⁾하며, 소설로서의 문학성을 폄하하는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황엽에 대한 “의인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못한 점, 인물의 성격에 감정과잉적 측면이 지나치게 드러나 있는 점, 스토리 전개에 산만함과 지나친 암시적 처리로 인한 통일성의 결여, 시점의 불일치 등의 결정적 결함들을 갖고 있”²⁵⁾다는 논의가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데 「황엽전」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은 도리어 「황엽전」의 문제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필자는 「황엽전」이 통상적인 개념의 근대소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21) 「골목안」, 위의 책, 105쪽.

22) 「골목안」, 위의 책, 114쪽.

23) 「골목안」, 위의 책, 105쪽.

24) 홍신선, 앞의 글, 433쪽.

25) 심원섭, 앞의 글, 170-171쪽.

야말로 「황엽전」이 갖는 특유의 서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육사가 기존의 낯익은 근대 소설의 서사적 양식과 달리 고전 서사의 양식 중 하나인 ‘전(箋)’을 차용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육사가 근대소설의 서사양식을 전적으로 취하지 않고, 고전 서사의 양식을 취하였다는 점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근대소설의 서사양식이 아닌 고전 서사의 양식을 통해 육사의 소설적 전언을 전하고 싶은 서사적 욕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서사적 욕망은 앞서 중국의 소설을 번역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1930년대 후반 이후 한층 더 강화되는 일제의 파시즘체제의 현실에 대한 육사의 우회적 글쓰기의 맥락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육사는 우회적 글쓰기의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 소설 창작에서 고전의 서사 양식을 적극적으로 취했던 것이다.²⁶⁾ 고전 서사물들의 대부분이 그렇듯, 부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문제삼기보다 비현실적 표현을 통해 부정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서사적 대응을 펼쳤던 만큼 육사는 이러한 고전 서사양식의 특장(特長)에 주목하여 자신의 소설적 전언을 드러낸 것이다.

「황엽전」을 통한 육사의 소설적 전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때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황엽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황엽의 시선에 의해 인간 세계는 보여진다. 이때 황엽의 시선은 작중 인물 소년의 시선과 포개지는데, 소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이 육사가 들려주고 싶은 소설적 전언이다. 황엽은 소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세계의 양상을 이해한다. 그렇다면, 소년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소년에게 벌어진 주요 사건을, 「황엽전」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 ① 소년의 고향은 해안가인데, “끝없이 널려 있는 백모래밭이 너무 허무해서”²⁷⁾ 서울로 가출한다.
- ② 소년은 서울에서 성장하여 어느덧 한 여인과 사랑을 한다.
- ③ 하지만 부모의 뜻을 어길 수 없는 여인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이별을 한다.
- ④ 그러던 어느날 그는 “폐잔병의 유령”²⁸⁾이 되어, 세상을 떠돌다가 자살의 유혹에 시달리기도 한다.
- ⑤ 그는 세상을 떠돌다가 어느 마을에서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과 추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 ⑥ 그런데, 그 끔찍한 꿈 속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떠났던 고향 사람들이었으며, 꿈 속에서 만난 노인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 ⑦ 아무리 그들을 불러봐도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 ⑧ 그는 꿈 속 고향 사람들이 절망과 희망의 교차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향해 떠나듯이, 꿈에서 깨어나 또 다시 기약 없는 길을 떠난다.

26) 고전에 대한 육사의 식견과 교양은 『형상』지 1934년 2월호에서 실시한 「1934년 문단에 대한 희망」의 앙케이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응답에 잘 드러나 있다. “외국의 문학유산의 검토는 유산이 없는 우리 문단에 필요한 일이겠지만 과거의 우리나라의 문학에도 유산은 적지 아니합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 -거저 없다고만 개탄하지 말고.”(『이육사전집』, 김용직·손병희 편, 깊은샘, 2004, 378쪽) 여기서 육사는 서구의 근대적 문학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문학유산 속에서도 긴요한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7) 이육사, 「황엽전」, 『이육사전집』(김용직·손병희 편), 깊은샘, 2004, 94쪽.

28) 「황엽전」, 앞의 책, 96쪽.

소년에게 벌어진 주요 사건을 정리한 데서 알 수 있듯, 「황엽전」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한결 같이 지적한 것은 근대소설로서 갖는 형상화의 결점들이다. 소년이 탈향한 이유부터 어떤 내적 필연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막연히 소년이 살고 있는 해안가의 풍경이 지루해서 상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느닷 없이 소년이 ‘폐잔병의 유령’이 되어 나타난 점, 그 유령이 꿈을 꾸다는 점, 하필 꿈 속에서 그가 떠난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점, 꿈에서 깨어나 다시 어디로인지 떠나고 있다는 점 등 소년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도대체 이러한 우연성을 통해 육사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창작 의도가 선명하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야말로 육사의 우회적 글쓰기의 의도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

여기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소년의 존재 전이가 갖는 의미다. ①②③에서 소년은 인간이며, ④~⑧에서 소년은 인간이 아닌 유령이다. ‘인간→유령’으로 존재의 전이가 이루어진 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 우선, 소년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출하여 한 여인과 사랑을 한다는 것으로부터 소년은 ‘근대적 인간’의 자격을 획득한다. 그는 근대적 문명의 세계에서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사랑을 만끽하는 근대적 주체의 성격을 지닌다. 그의 사랑이야말로 근대적 형식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 주체로서 그가 쟁취하고자 한 근대적 사랑의 형식은 완성되지 못한다. 여전히 부모의 영향 아래 있으며 근대적 주체로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여인과의 이별로 인해 그는 세계의 고통에 맞닥뜨린다. 아직 근대적 주체들이 자기의 상(像)을 온전히 확립하지 못하는 데 대해 그는 환멸을 갖는다. 그리하여 근대적 사랑을 쟁취할 수 없는 주체의 슬픔과 고통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유령’으로서의 존재로 그 성격을 변환시킨다. 말하자면, ‘유령’은 막연히 비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얼토당토 않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작가인 육사가 근대적 주체로서 맞이하는 환멸적 태도를 애들러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해 본다.²⁹⁾ 다시 말해 소설의 표면상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랑과 이별을 통해 담아내고자 한 것은 조선의 현실은 아무리 일체의 식민지 근대로 인해 근대의 일상 세계가 펼쳐지고 있으나, 기실 그 근대의 일상 세계 속에서 근대적 주체가 온전히 확립될 수 없다는 데 대한 현실 인식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해석의 비약일지 모르나, 여인의 근대적 사랑은 근대적 일상의 논리와는 배치(背馳)되고 있어, 이것은 일체가 식민지 근대의 일상을 제어하면서 피식민지인으로 하여금 식민지 근대의 일상 세계의 노예의 처지로 전락시키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피식민지인으로 하여금 식민지 근대의 일상 세계를 공유하도록 하되, 어디까지나 식민체제의 지배를 받는 피식민지인으로서 근대의 일상 세계를 공유하도록 그 일상의 범위와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러한 식민체제의 근대적 일상의 억압을 육사는 소년의 사랑과 이별이란 우회적 글쓰기로 드러내보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

사실, 피식민지인으로서 근대적 주체의 온전한 상을 확립하지 못한 환멸적 태도는 인간이 아닌 유령으로서 세계를 배회하게 하는 대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육사는 유령이란 존재를 통해 식민지 근대의 풍경, 곧 “괴수같이 늘어선 빌딩들의 검은 그림자가 ‘아스팔트’에 얼어붙은 거지들의 싸늘한 꿈을 죽음같이 덮어논”³⁰⁾ 것이라며, 그 음산한 도시의 풍경들을 보여준다. 이제

29) 그런데 박지영은 이 유령을, 식민지의 참담한 현실에 고통을 겪는 조선 민중들에 대해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육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면적 고통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것은 소년이 ‘인간→유령’이란 존재 전이가 갖는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유령이 되어 꿈 속에서 고향 사람들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한 것에만 주목한 것이다. 이미 유령이 된 이후의 사건을 결과적으로 파악하여 유령의 존재적 의미를 해석한 것은 작품의 의미 맥락을 도외시 한 연구 결과라 볼 수 있다. 박지영, 「이육사의 시세계」, 『반교어문연구』 17집, 2004, 152쪽의 논의를 참조.

유령은 음산한 도시의 풍경에서 벗어나 식민지 근대의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배회할 수 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식민지 근대의 풍경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유령의 이와 같은 존재의 성격이야말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비록 유령이 비현실적 존재이지만, 유령이 꿈 속에서 목도하는 세계의 실상은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인바, 그것은 홍수와 굶주림, 추위에 시달리는 식민지 근대가 빚어놓은 피식민지인의 삶의 고통스런 풍경들이다. 여기서 육사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우회적 글쓰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더욱 그 억압의 강도가 심해지는 일제의 파시즘 체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글쓰기란 좀처럼 행해질 수 없다. 그렇다고 육사는 일제의 파시즘 체제에 순응하는 친일의 글쓰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육사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글쓰기가 요구되고, 「황엽전」은 유령이란 황당무계한 존재의 꿈을 빌어 식민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유령이 출현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더욱이 황당한 것은 유령이 꿈을 꾸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의 합리적 인식과는 이만저만 배치(背馳)되는 게 아닐 수 없다. 육사의 서사적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제의 식민지 근대가 아무리 근대의 합리적 인식과 실천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피식민지의 삶의 존립 근거를 박탈하고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육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현실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비현실적 현실에서 존재의 실감을 확보하는 유령을 통해 그러한 근대의 부정과 폐단을 신랄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육사는 식민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또 다른 삶의 근거지를 향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보에 애정을 갖는다.

“가자. 조금이라도 빨리 가자. 불빛을 볼 때까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굶은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암, 그래야지.” 또 몇 사람의 대답이 끝나면 모다들 침묵은 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역시 “가자”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빨을 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전진합니다. 지나온 길이 얼마이며 가야 할 길이 얼마인 것도 모르면서 죽으나 사나 가야 한다는 것밖에는, 그들은 한 사람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의 발소리와 호흡이 그들과 같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 잔혹한 자연과 싸워가는 무리들의 금과옥조이었습니다.³¹⁾

아무리 식민지의 현실이 암울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신생의 삶을 향한 피식민지인의 욕망과 의지를 육사는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을 유령의 꿈 속에서 확인한다. 여기서 육사가 유령의 꿈 속에서 식민지의 두 가지 양상에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제의 파시즘 체제에서 고통을 겪는 피식민지인의 참담한 현실의 풍경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현실에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관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되 그에 체념하지 않고 또 다른 삶의 터전을 향해 떠나는 신생을 향한 피식민지인들의 삶의 엄숙성이다. 이를 통해 육사는 일제의 파시즘 체제의 강화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삶을 지탱해나가려는 강인한 삶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물론, 아직도 현실은 “깜깜한 암흑 속”³²⁾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여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언젠가 도래할 광명의 세계를 향해 길을 계속하여 가는 일이다.

30) 「황엽전」, 위의 책, 96쪽.

31) 「황엽전」, 앞의 책, 101쪽.

32) 「황엽전」, 위의 책, 102쪽.

모다 제각기 제 갈 길을 가고만 있었습니다.

유령도 그때야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몹서리를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리한 꿈이며 괴로운 꿈이었습니까? 유령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 속을 영원히 차고 영원히 새지 못할 듯한 밤을 제 혼자 가는 것입니다. 십년 전 내 발길을 지나다니며 사랑을 속삭이든 소년은 지금도 발길을 저 혼자 가고 있겠지요. 낙엽은 그래서 서러운 일생을 울고만 있습니다.³³⁾

유령이 가는 길은 아직 혼자다. 비록 흥겹고 신명이 나는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혼자 간다. 이 여정을 지켜보는 황엽은 울기만 할 따름이다. 언제 유령의 여정이 끝날지 황엽이 할 수 있는 일은 유령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

요컨대 육사는 「황엽전」을 통해 작품의 표면상 황당무계한 유령이란 존재를 출현시켜 유령의 기담(奇談)을 들려주고 있는 듯하지만, 기실 들려주고 싶은 소설적 전언은 고전의 서사양식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근대의 일상 세계 속에서 피식민지인이 근대적 주체로서 정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식민지 근대의 일상적 억압을 사랑과 이별의 서사를 통해 에둘러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유령의 꿈을 통해 식민지 파시즘 체제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 피식민지인의 암울한 현실과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생의 삶을 향한 욕망과 의지를 우회적 글쓰기의 형태로 주목한다.

4. 맺 음 말

이상으로 필자는 육사의 문학 연구에서 소홀히 간주해온 육사의 소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육사의 문학 활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사의 행적, 그리고 육사의 문학 작품에 대한 편견 없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육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 성과에서 육사의 소설에 대한 논의는 매우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우선, 필자는 육사의 두 편의 번역 소설을 검토해보았다. 창작이 아닌 번역 활동을 통해 육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설적 전언을 구명해본바, 노신의 「고향」을 통해서 육사 자신의 잦은 ‘탈향-길떠나기’가 갖는 의미 맥락을 우회적 글쓰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 식민체제의 일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식민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길을 향해 떠나는 육사의 ‘탈향-길떠나기’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면서,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정익의 「골목안」을 통해서 만주의 어느 골목안에서 펼쳐진 중국인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마저 일제의 식민지 근대가 초래한 근대의 폭력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폭력적 일상을 예의주시하여 그것을 부정하고 경계하는 육사의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육사는 만주에서 중국인이 겪는 식민지 근대의 암울한 현실을 응시하되, 그것은 일제말 조선에 가혹해지는 식민지 근대의 폭압과 침탈로 드리워진 근대의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일제의 식민지 근대의 어둠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폭압적 근대가 갖는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현전하는 육사의 유일한 창작 소설인 「황엽전」을 검토해보았다. 「황엽전」

33) 「황엽전」, 위의 책, 102쪽.

이 근대소설의 관점으로는 형상화의 미숙성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 미숙성이야말로 「황엽전」이 갖는 특유의 서사적 가치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소설의 서사양식을 전적으로 취하지 않고, 고전의 서사양식을 차용하고 있어 근대소설의 문법에 의해서만 그 의미 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하여 필자가 주로 논의를 펼친 것은 「황엽전」의 작중 인물 소년의 존재 전이가 갖는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인간→유령’의 존재 전이를 거친 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근대적 사랑의 형식으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온전한 상을 확립하지 못하는 존재의 환멸적 태도를 에둘러 표현하고자 한 것이 바로 유령의 존재성이며, 이것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일제의 식민지 근대의 일상 세계 속에서 피식민지인이 근대적 주체로서 정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식민지 근대의 일상적 억압을 사랑과 이별의 서사를 통해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령의 꿈을 통해 식민지 파시즘 체제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 피식민지인의 암울한 현실과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생의 삶을 향한 욕망과 의지를 우회적 글쓰기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육사 문학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논의는 육사의 문학 세계 전반을 향한 논의 속에서 그 논의의 맥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바, 육사의 소설에서 보인 우회적 글쓰기가 일제말 파시즘 체제에 대한 비협력과 저항의 차원으로 새롭게 파악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 「이활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0-의열항쟁 3』,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7.
- 김대행 외,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민음사, 2004.
- 김삼주, 「이육사의 비평론 고찰」, 『예술원논문집』 25집, 1996.
- 김영주, 「육사수필의 문학성」, 『안동문화』 14집, 1993.
- 김용직·손병희 편,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
- 김인환, 「번역과 맥락」, 『상상력과 원근법』, 문학과지성사, 1993.
- 김장동, 「이육사 소설에 대해」, 『안동문화』 14집, 1993.
- 김재용, 「일제말 문학인의 세 가지 저항 방식」,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김재용, 「이육사와 중국」, 『안동작가』 4호, 2006.
- 김희곤, 『다시 쓰는 육사평전』, 지양사, 2000.
- 박지영, 「이육사의 시세계」, 『반교어문연구』 17집, 2004.
- 심원섭,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및 소설에 나타난 노신 문학 수용양상」, 『연세어문학』 19집, 1986.
- 유현정, 「이육사(1904~1944)의 시대인식-1930년대 시사평론을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논문, 2002.
- 하상일, 「이육사의 사회주의 사상과 비평의식」, 『탈식민주의를 넘어서』(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소명출판, 2006.
- 한경희, 「착종된 현실에 대한 투지의 금강심-이육사 수필을 중심으로」,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이육사문학축전 기념문집), 2004.
- 홍기돈, 「성리학적 세계의 파탄과 육사가 선택한 길」, 『안동작가』 4호, 2006.
- 홍기돈, 「육사의 문학과 연출된 요양여행」, 『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소명출판, 2007.

홍신선, 「육사소설의 구조」, 『동악어문논집』 17집, 1983.

<ABSTRACT>

A 'Roundabout Writing' and Resistance in Yuksa(육사) Novel

Ko, Myeongcheol
(Kwang-Woon University)

Yuksa's three posthumous novels in the form of creation and translation should be understood not a writing which yielded under fascism system of Japanese imperialism much gathered momentum from the end of 1930s, but a category of so-called a 'roundabout writing' which confronted against Japanese fascism and was one type of writing of writers at those times. Through three novels, he did a 'roundabout writing' which was different from poetry. Under Japanese political suppression, his writing was his suffering product of literary expression in which he could not neglect and directly confront dismal reality in colony. He stared at the dark side of colonial modern period and tried to make his way through his practical intention.

I reviewed his two novels in translation. Through Nosin's <Kohyang>(고향), Yuksa expressed meaningful context having his frequent 'escaping hometown-leaving road' in the form of a roundabout writing. Being not content with life of Japanese colonial system, it was roundabout expression about his 'escaping hometown-leaving road' toward an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for overcoming colonial system and also expressed his intention for making the road newly. Through Kojeong's <Golmokan>(골목안) he caught sharply the dark side of colonial modern period through Chinese's miserable reality happened inside of the alley in Manchu. Staring at Chinese's miserable reality of colonial modern period in Manchu, he did not neglect the exposure of the dark side of modern period in which Japanese's suppression and plunder toward Chosun in the end of Japanese colony was much more extreme. In other words, by bringing out the darkness of Japanese colonial modern period, he revealed indirectly the problem having its suppressive modern period.

Next, I examined his only creative novel <HwangYeupJeon>(황엽전). Even though <HwangYeupJeon>(황엽전) was immature in the form with the view of modern novel, its immaturity was the unique descriptive value. Therefore as the form of modern love, disillusionive attitude of existence, which did not establish whole image of modern subject, tried to express indirectly was the right existence of ghost and it revealed indirectly daily suppression of colonial modern period through the narration of love and separation in which colonists could not take a position as the modern subject.

Moreover through the dream of ghost, the dark reality of colonists experiencing all kinds of pain under the fascism system and the passion and intention toward the life of newborn which tried to overcome its reality were expressed in the form of a roundabout writing.

* Key Word: roundabout writing,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fascism, colonial modern period, novel in translation, creative novel